



문화전당 '시민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마지막 무대

'UN 오케스트라' 광주 공연

26일 예술극장1·티켓 1천원 피아니스트 김다솔 협연 오디션 합격자 1일 단원 참여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최근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축제 'ACC 시민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를 진행했다. 시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열정 어린 연주는 소소한 감동을 전했고, 생활 속에 녹아 든 문화예술의 가치를 일깨워줬다. 또 문화 전당 무대에서 공연을 개최, 전당이 프로 예술가들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활짝 열렸음을 보여줬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지난 9월 오프닝 세미나 '생활 속 음악, 음악과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경연, 본선 참가자 연주회 등으로 구성됐다. 예선에는 모두 9개 팀이 참여했고 본선 경연에는 광산신포니아오케스트라, 광주베누스토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밀하모니 오케스트라, 순천에향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출전했다.

23일에는 예술극장2에서 이들 4개 팀의 특별 공연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라벨의 '볼레로', 글리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등을 연주, 실력을 뽐냈다.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무대인 'UN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26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1에서 열린다.

유엔 오케스트라 역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70여 명의 단원이 모인 아마추어 연주 단체다. 특히 올해는 유엔협회세계연맹 창립 70주년을 맞아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음악을 통한 평화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내한, 광주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유엔오케스트라 공동 창립자이자 예술 감독인 앙토완 마르귀어(제네바 오케스트라 음악원 음악감독, 제네바 실내악 음악원 교수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폴 카잘스 곡 'UN 찬가'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또 퀸엘리자베스 쿤쿠르, 스위스 제네바 쿤쿠르, 윤이상 국제음악 쿤쿠르 등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다솔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도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된다. 시민오케스트라 경연 우승팀인 마에스트로 오케스트라와 개인 오디션 합격자들이 1일 단원으로 참여, UN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주곡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판타지'다.

개인 오디션 합격자들은 완도에서 온 비파 농장 운영자(트롬본), 화순의 농원 운영자(트럼펫), 초등학교 명예 퇴직 교사(첼로), 음악 교육자가 꿈인 광주교육대학교 학생 등 20~60대로 구성돼 있다.

티켓 가격 1000원. ACC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7회 시산맥작품상 최정란 시인 '바나나 속이기'

제7회 시산맥작품상에 최정란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바나나 속이기'이며 상금 300만원.

시산맥작품상은 지난 한 해 기간 시산맥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 추천된 작품상 후보 작품 중 7편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심사위원은 외부 유안진·송찬호 시인과 고봉준 평론가, 내부 본지 편집기획위원 전해수(평론가)가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작품상 선정에 대해

"최정란의 '바나나 속이기'는 요컨대 애인과 나의 불균형한 관계맺음을 직시하고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긴요한 대상으로서 '바나나'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그 성적 메타포를 통해 사랑의 한 방식을 드러내는 바, 시적 성취에 도달하고 있는 수작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정란 시인은 시집 '여우장갑', '입술거울', '사슴목발' 등을 펴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이며 요산창작기금 등을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26일 오후 4시 동국



최정란 시인

대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또한 일 년 간 토너먼트로 열린 시 경연 대회 '2016 시어, 눈을 감아라'에서 최종 우승을 한 함평 출신 안태현 시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제1회 최치원신인문학상 수상자 최지원 시인, 제1회 정남진신인시문학상 수상자 김주 시인에 대한 등단패도 함께 수여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단에서 미술계로 '성추문' 일파만파

'은교' 작가 박범신 사과 또 사과·시인 박진성 활동 중단 성희롱 폭로에 여성 팬 반박까지... SNS 공방 확산 일민미술관 함영준 큐레이터 성추행 의혹...인터넷에 사과

최근 성추문에 휩싸인 박범신(70) 작가와 박진성(38) 시인이 온라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 작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묘사된 여성 팬 등이 폭로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작가는 23일 오전 트위터에 "내 일로 인해~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하고 싶어요. 인생-사람에 대한 지난 과오가 얼마나 많았을까, 아픈 회한이 날 사로잡고 있는 나날이예요. 더 이상의 논란으로 또 다른 분이 상처받은 일 없길 바라요. 내 가족~날 사랑해준 독자들께도 사과드려요."라고 썼다.

그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1일 밤에도 "오래 살아남은 것이 오욕~죄일지라도..누군가 맘 상처받았다면 나 이 든 내 죄겠지요. 미안해요~"라며 사과했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트윗을 삭제한 바 있다.

박 작가의 성추문은 그와 수필집 작업을 했다는 전직 출판 편집자 A씨가 트위터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편집팀, 방송작가, 팬 2명 등 여성 7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박 작가가 방송작가와 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편집자에게 성적 농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 작가가 소설 '은교'를 영화로 제작할 당시 주연배우 김고은씨에게 성

경험을 묻은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작가의 반박된 사과와 별개로 SNS에는 그의 성희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방송작가라는 B씨는 페이스북에서 "글에 오르내리고 있는 당사자는 성희롱이라고 느낀 적이 없다"며 "방송작가가 아이템을 얻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견뎠다는 뉴앙스의 글은 방송작가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폭로 글에서 피해자로 언급된 방송작가의 동료로, 당시 박 작가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팬으로 언급된 C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일사안었다. 오랜 팬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행동"이라며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본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정사실인 양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달 말 장편소설 '유리'를 출간할 예정인 박 작가 측은 서둘러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박 작가의 인터넷 블로그 '관리자'는 전날 공지문을 올려 "미디어의 특성상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비난은 당사자 외에도 주변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작가 지망생 등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박진성 시인도 공개 사과했다.

박 시인은 전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부적절한 언행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산문집과 내후년에 출간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는 시집 모두를 철회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SNS 계정을 단정하겠습니다"라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인은 자신에게 시를 배우려고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들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 작가 지망생의 폭로 이후 여러 명의 피해자가 트위터에 박 시인의 성폭력을 고발했다.

한편 23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이 예술대학을 다니며 작업하고 있는 21세라고 밝힌 'Soma Kim'은 지난 21일 "지난해 큐레이터 A씨가 작업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해 만난 뒤 차에서 손을 잡고 다리, 어깨 등을 만졌다"고 폭로했다. 22일에는 다른 피해자가 일민미술관 함영준 책임큐레이터의 실명을 적시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함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미술계 내에서 저의 지위와 권력을 엄밀히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여성 작가를 만나는 일에 있어 부주의했음을 인정한다"면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진 모든 직위를 정리하겠다. 현재 저와 진행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정리한 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소영 '프리저브드 플라워' 작품전

광주여성재단, 25일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제)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오는 11월 24일까지 재단 내 북카페에서 김소영작가의 '프리저브드 플라워' 작품전(사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지역여성 작가의 솜씨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광주여성재단이 연중상설로 기획한 제10차 작은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다.

김소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시들지 않는 생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빈티지페인팅, 캔추리인형 등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씨는 2015광주 봄꽃박람회, 2015광주 핸드메이드페어, 2015광주공예가회 전시 등에 참여했으며 행복산책 공방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이씨는 25일 오후 2시 재단 북카페에서 시민 대상 무료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특수용액으로 가공처리된 시들지 않는 생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직접 만들어본다. www.gjwf.or.kr. 문의 062-670-05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DR (SMART DISPOSER ROOT) and 황금맷돌 (GOLDEN MATTOL) food waste disposers. It features images of the products, logos for CES and other cert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062) 515-1144.

Advertisement for IPALG (이파엘지) premium exterior design services. It highlights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Premium Exterior Design Waterproofing) and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IPALG Art Fashion Sheet Exterior Waterproofing Remodeling System). It includes a list of services, contact numbers, and a website: www.ipalg.com.